

주요기사 해설

2007-08-27[해외]

● 유럽증시, 5주간의 하락세를 마친다

신용경색으로 인한 세계 증시하락세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추측 속에 유럽증시가 지난 6월 이후 가장 높은 주간상승을 보였다. 제강업체와 채광업체 등 경제성장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는 산업이 주가상승을 이끈 가운데 M.M Warburg & Co의 투자전략부의 칼스턴 틀루드씨는 경제 데이터상 아직까지 이번 금융 위기가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징후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블룸버그통신[2007-08-27]

● 대형 제약사들 합병 루머 무성해

2주전, 바이엘의 주가는 노바티스와의 합병설로 인해 하루만에 5.5% 상승했고, 지난주에는 화이자와 와이어스의 합병설로 두 종목이 각각 2.0%, 3.0%의 주가 상승률을 보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대형 제약사들의 합병은 해당사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화이자와 와이어스의 경우, 양사 모두 주력 판매품목이 2010년에서 2011년 사이 특허 보호권을 잃게 되고, 현재 이를 대체할 만한 차기 품목이 없는 상황이기에 때문에 향후 수익성 저하가 발생할 경우, 합병으로 인해 커진 규모가 부담으로 다가오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포춘[2007-08-24]